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최고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도착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굽속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히 밝히는 빛입니다.

이 선물은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끊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이 선물을 소중히 받으십시오.

성탄 칸타타 '성탄의 기적'

12월 20일(오늘) 찬양예배 시 - 가브리엘 · 아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기쁨의 찬송

성탄 축하의 밤

12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 본당 - 교회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성탄의 하모니

성탄감시예배

12월 25일(금) 오전 9시 · 11시, 본당 - 온 가족이 성탄을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예배

- *오늘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의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안, 모든 제직 참석)
- *성탄절(25일), 금요찬양집회와 기도원집회가 없으니, 성탄감시예배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제6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및 공동의의 (찬양예배 후, 세례교인은 필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디도서 2:11~14)

심이라 하니라"(마 1:21)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천여 년간 교회는 구원에 대해 말해왔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디도서 2:11~14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을 단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과거 그때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현재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나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선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구원은 우리의 과거(딤후 2:11), 현재(딤후 2:12), 미래(딤후 2:13)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길을 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MIRACLE OF THE WISE MEN

⁽¹⁾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²⁾"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¹⁰⁾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¹¹⁾After com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presented to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Matthew 2:1~11)

December is the season of miracles. The Christmas message reveals the miracle of the virgin mother that was prophesied from long ago, the miracle of Joseph's dreams, the miracle of an angel talking to shepherds in a field near Bethlehem, the miracle of tens of angels singing before shepherds, and the greatest miracle of all, Christ born in a manger. Today we are thinking about the miracle of the 'magi,' wise men from the east, who were experts in the study of the stars. The Bible doesn't mention their names, or how many of them there were. It's believed there were three because of the three gifts given to Jesus. The Bible also doesn't tell us when they began their journey or the exact length of their travels. The Bible does say that they came from the east, probably from the region of Babylon, known to us today as Iraq. We imagine they were wealthy because of their expensive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radition says they were kings, but we do not know that for certain. Let's look at God's miracle with the wise men.

Why did the wise men leave the east? These magi probably studied the book of Daniel and other Old Testament writings. Remember that Daniel had been taken captive by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He was chosen by the king to learn his culture's literature and language. Daniel kept his faith in God and studied hard and became the head of wise men. He was eventually given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nd his fame spread throughout the land. His vision of the coming Messiah was recorded in Daniel 7:13-14, and certain numbers concerning His coming were recorded in Daniel 9:24-26. Also, the Book of Numbers, like Numbers 24:16-17, "The oracle of him who hears the words of God, And knows the knowledge of the Most High, Who sees the vision of the Almighty, Falling down, yet having his eyes uncovered. I see him, but not now; I behold him, but not near; A star shall come forth from Jacob, A scepter shall rise from Israel, And shall crush through the forehead of Moab, And tear down all the sons of Sheth" is probably something they also studied. The wise men believed that the Messiah was going to come from Israel. They believed in His star, so that when they saw it they followed it. They came to Herod and brought with them the wonderful message,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Mt. 2:1~2).

How did the wise men get off track? When they saw the Messiah's star they started to follow it and were on the right track, but then they ended up in Jerusalem because they got sidetracked. In Jerusalem, without thinking, they went to the palace. They thought it was the right place, and probably got a shock when it wasn't. These Gentiles came into Jerusalem talking about the Messiah, waking up the sleeping souls of Israel, and forcing their scholars to study,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Gathering together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Mt. 2:3-4). The wise men thought they were doing right because they started with God, but they

took their eyes off the star and began relying on their own knowledge and will. They changed direction because they were doing their own thing and what they felt was right. Many of today's Christians are very similar to the wise men. They start with God and then get off track because they follow their own feelings instead of Christ. Can you recall such incidents in your own life? It's easy for us to revert to using our experiences, logic, and intelligence to guide us in this life. The Bible warns us not to do that, "So also we, while we were children, were held in bondage under the elemental things of the world. ... But now that you have come to know God, or rather to be known by God, how is it that you turn back again to the weak and worthless elemental things, to which you desire to be enslaved all over again?" (Gal. 4:3-9). Jesus specifically say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Like the wise men who needed to follow only the star, so too we must follow Jesus only.

What brought the wise men back on track? After the great scholars of Israel studied the Scriptures concerning the Messiah's birth, they found the answer. They told the king, "In Bethlehem of Judea; for this is what has been written by the prophet: 'AND YOU, BETHLEHEM,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LEADERS OF JUDAH; FOR OUT OF YOU SHALL COME FORTH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Mt. 2:5-6). The Bible scholars found Micah 5:2, bu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y didn't really believe it. The wise men believed it. The Bible made the wise men head immediately toward Bethlehem. The Bible put the wise men back on track. They left Jerusalem and went to Bethlehem, and on their way they saw the star again, "After hearing the king, they went their way; and the star, which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on before them until it came and stoo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Mt. 2:9-10). They saw the Light! When we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we see the Light, the Light of lif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Jn. 1:4-5). It is so sad that God's people did not see it,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n. 1:11-12). When we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we will get back on the right track.

My dear friend, we just finished celebrating Christmas Day, so we need to remember the miracle that happened to the wise men. They started their long journey with God, and then their pride got the best of them. Their own knowledge threw them off track, but they found their way back to the right track by the Bible. They obeyed the Bible and immediately got right back on track. We are heading into a new season with Jesus, and we need to follow Him all the way with the Bible. Please make Jesu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and follow Him with the Bible.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동방박사들에게 일어난 기적

“^①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②“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③“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④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1~11)



김성관 목사

12월은 기적의 달입니다. 오래 전에 예언되었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과 요셉의 꿈을 통해 나타난 기적, 베들레헬 근방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여 준 기적, 목자들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기적 등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수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구유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을 연구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몇 명인지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드려진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세 명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들이 언제 여행을 시작했는지, 또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방, 아마도 오늘날의 이라크로 알려진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이 값비싼 선물을 드린 것으로 봐서 우리는 그들이 부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경에서는 그들이 왕이었다고 전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살펴봅시다.

왜 이들은 바벨론을 떠났을까

왜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났습니까?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이나 다른 구약 성경을 공부했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왕에게 선택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그의 명성은 그 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니엘 7:13~14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9:24~26에는 주의 오심과 관련된 특정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민수기 24:16~17의 내용을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까닭은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구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요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헤롯왕에게 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2).

왜 이들은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났는가

동방박사들은 왜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메시아의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때까지는 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기로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여정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헬에서 그들은 생각할 처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헤롯왕에게 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2).

느나 물으니”(마 2:3~4).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에서 눈을 돌려 자신들의 지식과 뜻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느낀 대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동방박사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궤도를 벗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과 논리, 지식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교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갈 4:3~6).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오직 별을 따라가야 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했는가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한 후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헬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헬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 2:5~6). 성경학자들은 미가서 5:2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발길을 즉시 베들레헬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동방박사들을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헬으로 갔고 도중에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곧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 2:9~10). 그들은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빛, 곧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모든 사람의 빛이 되며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4~5).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1~12).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동방박사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자존심이 타격을 고개를 들고, 그들의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궤도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즉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여 두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4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사복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한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거의 서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나 지극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서를 해석하는 데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세례와 공생애, 수난과 죽음, 부활의 순서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특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사건 서술의 순서가 다르다.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로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고(막 11:1~10), 정전으로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신 뒤(막 11:15~19)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막 14:3~9)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막 14:17~25)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요 2:13~22)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고 그 다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요 12:1~8), 예루살렘 입성(요 12:12~16), 마지막 만찬(요 13~17장)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 마가와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막 13:3~9; 눅 7:36~38)라고 밝힌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였다(요 12:3).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베다니), 향유(순전한 나드)와 가격(300데나리온),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가만 두어라)과 메시아(나의 장례를 위한 것,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행하였던 사건에 대한 기록 등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는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요 1~20장) 하였으며,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을 지지하는 내용도 부록(요 21장)으로 첨가하였다. 이것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대략 30~40년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만이 언급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한 반면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생명, 영광)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는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나다나엘의 모습(요 1:47~51)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창 28:12)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가나의 혼인 잔치(요 2장)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하여 끊어진 에덴동산의 회복, 니고 데모(요 3장), 수가성 여인(요 4장), 38년 된 병자(요 5장), 오병이어(요 6장), 필바 속에서의 복음 선포(요 7장), 간음한 여인(요 8장),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요 9장), 양의 우리 비유(요 10장), 나사로의 부활(요 11장)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기칼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고백이 삶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세상과 나를 더 사랑 하는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내 모습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고 무지한 죄인임에도 주님은 나를 품어 안아주 셧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말씀하시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구원의 은총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가장 연약하고 죄인된 자를 쓰시는 주님의 계산 방법으로 인해 주님이 몸 된 교회에 정치기로 세워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 안에는 또 다시 내가 무언가 잘해보려는 교만으로 가득해 집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칭찬을 받으려는 교만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지? 왜 내가 주인이 되려하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보혈 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겠느니라”(엡 20:28). 매순간 ‘내가’ 하려는 모든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눅 23:34). 이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교회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시고 부스러기시며 부인하게 하시는, 빈 그릇으로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주님의 작업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내가 한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와 허물’ 뿐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일 하는 시간이 못 지극 난 주님의 손을 만지는 주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것 뿐, 아니 이것조차 주님이 하시기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 나의 실체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순간 저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기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있는 기쁨과 감사가 채 마르기전에 넘어져 있는 나, 세워지고 넘어짐의 반복인 내 모습이지만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는 어린 양 보혈을 향해 입술을 열어 찬송합니다.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뿐! 합렐루야!”



김은성
(권사, 권사회 회장)

오직 복음에만 열중하게 하셨다

나이기도 많고 미련하고 약한 자였으나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언어 역시 어눌하고 건강 또한 미약하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각자의 생각은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만 열중하게 하셨다. 때로 예수님은 길에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셨고,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전옥희(은퇴권사, 7교구)

주님의 물주심과 돌보심

처음 가는 선교, 처음 가는 나라, 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이 새롭기도 하고 부답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였다. 그러나 준비 기간부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생각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다. 사역 기간 동안 우리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또 한 영혼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그 땅에서 학교 주변 전도의 길을 열어 주셔서 미래를 책임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어린 영혼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물 주심과 돌보심으로 자라나서 복음화에 앞장

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갖게 되었다.

박병선(집사, 23교구)

손과 발을 써가며

우리 팀 중 한 조가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서에서 우리 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고 매달은 자리를 찢어 주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다. 풀려나올 때는 경찰들이 모두 나와 잘 가라고 배웅까지 해 주었다. 부족한 언어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을 써가며 한국말로 전한 내용들이 감사하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첫 만남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가 넘쳤다.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모래 바람이 거세 육신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선교지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속히 전파되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기도한다.

박태순(권사, 2교구)

은혜

산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느 집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어 돌아서려는 순간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우리는 그분께

복음을 전했다. 이 때 손녀가 왔고 잠시 후 다른 손녀와 엄마, 다른 이웃 어른 한 분이 오셨다. 조금 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어린 손녀까지 보너스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돌을 귀 있는 자를 예비하셔서 돌아서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온 식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은혜요, 은총이 아닌가! 이후에 경찰에게 붙잡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를 멈출 수 없었다.

박원희(안수집사, 15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5일(목) ~ 1월 2일(토)	예비다부 2팀	변창대
12월 25일(금) ~ 1월 2일(토)	6교구 4팀	송영삼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4교구 6팀	박민호
12월 15일(화) ~ 12월 23일(수)	22교구 4팀	유동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화) ~ 12월 17일(목)	3교구 2팀	이천재
12월 11일(금) ~ 12월 19일(토)	24교구 5팀	왕순화



선교지에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단기선교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힘써 모읍시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큰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좋고
잔송 부르는게
좋아요.
최예원(유아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열린 기마실에
사는 할머니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김관(중학생, 예배다부)

세상 그 어느 보석보다
빛난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알구우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오신 예수님, 당신께 드
릴 것이라곤 상처투성인 나의 작은 마음뿐
이네요. 이 작은 마음대로 예수님 탄생
을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박인주(정년부)

예수님이 오셔서
좋아요.
마지영
(유아부)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 크리스마스 파티
나 스키, 빙예, 스케이트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
탄축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
다. 강정은(초등2부)

예수님 생일이 성탄
절이라 좋아요. 우리를 죄
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양유진(초등1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서 12월 25일에 태어나 주시
예수님은 천재예요. 모든 걸 만들
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요.
예수님 말이 많이 사랑해요.
박지민(유치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서
서 너무나도 좋아요.
김요한(중등부)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
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
고, 강세전부터 십자가의 대속물로
작정하시고, 그 생명을 쏘아 전부를 주
심에 맡겨 드려야 할 수 없을만큼 감사
합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윤용성(대학부)

크리스마스를 통해
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성문정(고등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
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지. 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소
식인지 잊고 지낸 날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전히 누리며 전하기 원합니다.
안경아(대학부)

나를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거듭나
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좋아요.
김한울(중등부)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은경(청년2부)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정현중(고등부)

크리스마스는 예수
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 이웃들
과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어서 좋다.
이지현(초등2부)

예수님 나심에 제겐 얼
마나 특별한지 몰라도 예수
님을 몰랐던 저를 만나주셔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 생일보다 기쁜
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또 있을
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재원(청년1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최승규(초등1부)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그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의 권유로 부모님과 저까지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비신자인 남편으로 인해 교회와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나뭇길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평탄한 삶을 살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가 왔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불순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들이 내 가슴을 마구 쳤습니다. 2시간 이상을 통화하고도 그렇게 긴 통화를 한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는 그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을 따라 수요일에 갔습니다. 목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너무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의 수요일예배에서 마지막 찬송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서서 전도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 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집을 나서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길거리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길거리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 문만 열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도 오랫동안 방황해 온 저를 무언히 참으시고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면서 쓰러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조혜영(성도, 새가족알육부)

작은 자의 기도

주님! 배틀레그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이여!

주의 은혜는 동방의 축복스런 작은 땅에도 아름다운 '충현'을 세워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로 기도드리나이다.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아홉 '충현'의 기둥 아래 작은 방에서 낮은 주의 백성이 두 손을 모으나이다.

인도네시아의 소리, 카자흐스탄의 기로만, 우즈베크의 아르카사,

몽골의 루야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정집사님,

주아로 당신을 간구하는 감집사님, 아들이 돌려앉아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뻐하나이다.

온 지구가 당신의 낙원 동산으로 거듭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나이다.

당신이 오시는 매일 매일을 위해

낮고 낮은 이국인들이 작은 방에 모였나이다.

굳어 설며 주시옵되 주의 뜻대로 하사옵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 전능하신 이여!

당신을 찾는 사람 사람 위에 당신의 성스런용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장병구(교회직원, 미화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36	김정훈	1	교역자	
1537	한소현	1	사모	
1538	김도현	1	유치부	
1539	고영호	21	대학부	노하은(4)
1540	신동우	4	중등부	박미지(16)
1541	서예나	8	대학부	박연경(8)
1542	이호출	4	중등부	윤병식(8)
1543	박부순	14	청년2부	김영희(13)
1544	임성민	5	중등부	김요한(6)
1545	주민수	5	중등부	류종희(2)
1546	홍리	25	외선부	황정미(7)
1547	폐래인	25	외선부	황정미(7)
1548	한숙식	16	고등부	김우석(16)
1549	기영훈	1	청년1부	김단웅(18)
1550	박정우	2	초등2부	신호학(9)
1551	이동관	14	초등2부	
1552	김정준	7	장년1부	김지원(7)
1553	유 현	16	중등부	김아리(12)
1554	박원철	21	장년2부	
1555	임형준	21	청년2부	최준호(20)
1556	이현지	22	대학부	방영미(3)
1557	박영희	19	장년3부	김관봉(19)
1558	유담식	11	고등부	권재성(11)
1559	홍수진	5	청년1부	유정미(12)
1560	김재라	3	대학부	김윤영(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 카드는 전도 카드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은 카드를 주고 받는다.

대부분의 카드에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메일을 활용하는 카드도 꽤 인기라고 한다.

혹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면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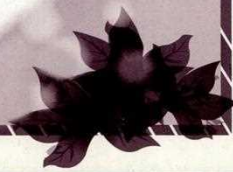
"이제 배틀레그로...빨리 가서...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여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여"눅 2:15~17)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5일(금)

오전 9시 ~ 11시



교 회 소 식

모 임

- 1. 찬양 연합 예배회(1·2·3·4지회)
일시: 23일(수) 12:40 장소: 갈릴리움
- 2. 남·녀 전도회장 전체 예배회
일시: 27일(다움 주일) 15:10
장소: 제1교구관 407호

발 세

- 1. 오영식 군(오세진 집사·유호순 권사의 아들, 7교구)과 박윤정 양(한희숙 집사의 딸, 타고) / 26일(토) 11:00, 공평타미널 예배장 3층
- 2. 장성준 군(장영환 집사·박민서 성도의 아들, 12교구)과 김성경 양(강순남 집사·노주현 권사의 딸, 타고) / 26일(토) 13:00, 경동제일교회 본당
- 3. 김진우 군(김관규 집사·최관순 권사의 아들, 13교구)과 백경림 양(고 백준기 타고집사·이인훈 타고권사의 딸, 2교구) / 26일(토) 13:00, 공평타미널 예배장 3층

결 혼

- 1. 오영식 군(오세진 집사·유호순 권사의 아들, 7교구)과 박윤정 양(한희숙 집사의 딸, 타고) / 26일(토) 11:00, 공평타미널 예배장 3층
- 2. 장성준 군(장영환 집사·박민서 성도의 아들, 12교구)과 김성경 양(강순남 집사·노주현 권사의 딸, 타고) / 26일(토) 13:00, 경동제일교회 본당
- 3. 김진우 군(김관규 집사·최관순 권사의 아들, 13교구)과 백경림 양(고 백준기 타고집사·이인훈 타고권사의 딸, 2교구) / 26일(토) 13:00, 공평타미널 예배장 3층

2010년 전반기 전도회장단 형성문헌

일시: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0~16:00

장소: 제1교구관 407호

4시(전도·선교) 기도회

일시: 매주일 16:00~16:30

장소: 갈릴리움

대신자 작성식 작성기간(교 구)

일시: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0일

선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1교구관 501호(캄보디아) 505호(베트남) 508호(인도)

2009년도 제6차 학습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20일 (오늘)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박순남 목사)	교구관	구원론 (이광현 목사)	교구관	유아세례관	교구관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교구별 장소		301호
12월 27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방)	유 아 세례식	유 아 세례식	유 아 세례식	유 아 세례식	유 아 세례식

새벽기도회 (12/21~12/27)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구재환	정진호/최계열	김익환/남용철	장 훈/권종철	이희식/최현규	하종철/윤인숙	이순식/김연식
설교 본문	메시아의 죽음	고후 12:1-10	마 1:18-25	마 2:1-12	눅 2:1-14	고후 12:11-21	고후 13:1-13

예배 담당 (12/23~12/27)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2/23	수요 I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다시 오시어만 한다(108-79) 김성관 목사	박용원	김금순	오 거룩한 밤(오산나 찬양대)
	수요 II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누 2:10-14) 유원철 목사	김운정	왕소화	하나님께 영광(실로암 찬양대)
12/25	성탄 I	예수님의 탄생(누 2:1-7) 김성관 목사	강명구	유원철	기쁘다 구주 오셨네(연합 찬양대, 오케스트라)
	성탄 II	예수님의 탄생(누 2:1-7) 김성관 목사	김익환	장 훈	기쁘다 구주 오셨네(연합 찬양대, 오케스트라)
12/27	주일 I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기적(마 2:1-11) 이광현 목사	이재현	조준민	(예배 전 찬양)
	주일 II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기적(마 2:1-11) 하종철 목사	탁정현	김종구	온 소서아 임마누엘 외 / 소프라노 안선희(예본 찬양대 지휘)
	주일 III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기적(마 2:1-11) 김성관 목사	강명구	이종석	동방에서 박사들 외 / 플루트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IV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기적(마 2:1-11) 강호성 목사	최진철	최세진	귀중한 보배함을 외 / 소프라노 문현정(연합 찬양대)
	주일 V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기적(마 2:1-11) 정진호 목사	이순식	추병강	찬송 찬송 메들리 / 핸드벨 연주대(지휘: 김유경)
	주일일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요 6:35) 김성관 목사	최성동	정정수	할렐루야 여성찬양단 / 오산나 찬양대 / 막이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교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저녁 10:3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오전 11:00에 교회로 주일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있을 수 있음. 오전 11:00에 도착해 주일 예배에 참여할 자,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1교구관 110호
	II 오전 11:00	제1교구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구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구관 2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구관 407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구관 507호
중등부	오전 10:30	갈릴리움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구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구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구관 4층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구관 2층

구분	시간	장소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구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구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구관 301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구관 301호
성남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부	오전 11:00	북지나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막상)	제2교구관 1층
타자부	(주)오전 8:30~9:00 (금)오전 6:30~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홀
국내교회인교부	오후 11:00	이엔 홀
영유아초등초등부	오전 8:30~9:40	제1교구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구관 107호
지적장애어린이집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12월 충현 기도의 향

“이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① 충현의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자기를 부린(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혼을 강권(행 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린(마 16:24)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복음의 동료(고전 2:2)가 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임의 및 부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 주주소.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대에 십자가의 복음(골 6:14)이 있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천국임금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전환 전도(매일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 1: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동행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사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가로림·남십리 설 기념 및 함양 충현동행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성 기 는 분 들

■ 사무장

노광현 유지위원장	이훈 재정위원장	김종구 총무	최신석 전임위원장	이종석 전임위원장	박민기 전임위원장	정진호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이희식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김종구 전임위원장

■ 위임목사 김성관

박민기 전임위원장	정진호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이희식 전임위원장
정진호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이희식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이희식 전임위원장	장 훈 전임위원장	이희식 전임위원장

■ 여전도사

윤인식 전임위원장	홍은희 전임위원장	이유주 전임위원장	김정자 전임위원장
김정자 전임위원장	이유주 전임위원장	김정자 전임위원장	이유주 전임위원장
이유주 전임위원장	김정자 전임위원장	이유주 전임위원장	김정자 전임위원장

■ 사명부지도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	김민식 전임위원장